

독자 집단에 따른 독서량과 상위인지의 종단적 효과 연구

오규설 근화여자고등학교 교사(제1저자)

김혜정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교신저자)

* 이 논문은 2021 부산교육총단연구 학술대회(2021.10.29.)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은 향후 미래 교육이 ‘개인과 사회의 복지(welbing)’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OECD, 2018). 따라서 문식 활동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데에서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이처럼 문식성이 단순 학습의 경계를 넘어 생의 복지를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는 반독서(反讀書)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독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는 여러 독서 실태 조사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19년에 실시한 청소년 독자·비독자 조사 연구(이순영·김주환·백원근·박신애, 2019)에 따르면 청소년의 독서 관심도는 초등학교 3, 4학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간헐적 독자·비독자¹⁾인 청소년이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이순영 외(2019)에서는 간헐적 독자를 한 달 이상의 간격으로 책을 읽는 경우로, 비독자

이처럼 책을 읽지 않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 ‘비독서(책맹, aliteracy)’이다. 비독서(책맹)는 글자를 알고 글을 읽을 수 있으나 책을 기꺼이 읽지 않는 상태 혹은 독서를 하지 않는 성향을 지칭한다(김혜정, 2019: 9-10).²⁾

그렇다면 글을 읽을 수 있음에도 읽지 않는 현상을 극복하고 독서를 점진적으로 늘여가고 발달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긍정적 독서 태도, 즉 독서에 대한 동기나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독서 동기나 흥미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Beers(1996b)는 지속적인 독서를 가능케 하는 독서 동기나 흥미의 발생이 초기의 성공적인 독서 행위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공적인 독서 경험이 결국 독서 행위를 지속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를 성공한다는 것은 한 편의 글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 뿌듯하게 느끼는 것이다. 내용 이해라는 인지적 측면 뿐만 아니라, 독자 정체성을 느끼는 정의적 측면에서 변화가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지, 정의, 행동적 요인들이 따라야 하겠지만, 최근에는 특히 독자의 ‘상위인지(meta-cognition)’³⁾의 활용을 중요한 기제로 보고 있다.

류수경(2020)은 내재적 독서 동기의 촉진 전략으로 인지주의적 접근을 활용하여 자율성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독서 과제의 설계 및 제시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때 상위인지의 효과적 활용은 내재적 독서 동기를 촉진하여 학습자를 평생 독자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는 책을 전혀 읽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 2) 김혜정(2019)은 ‘비(非)독서’라는 명칭이 ‘읽기 능력 부진으로 책을 읽을 수 없는 현상’과 ‘읽을 수 있으나 책읽기를 싫어하는 현상’을 구분 없이 포함하기 때문에, 이 용어의 한계를 지적하고 ‘책맹’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래서 이순영(2019)에서는 ‘비독서’를 ‘자발적으로 읽지 않는 현상’으로 맨 앞에 한정지는 뒤에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 3) 상위인지란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과제 수행을 점검·조절·통제하는 정신적 기제이며, 특히 독해와 관련하여 1970년대부터 사용된 개념이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따라서 독자의 성공적인 독서 경험은 상위인지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서 목적에 맞는 책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하여, 책을 읽어나가면서 얻은 정보를 처리하고 평가하고 전략을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상위인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상위인지가 실제 독서 행위와 얼마만큼의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의미한 독서 성공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독자 집단과 독서 성공 경험이 부족하거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비독자(책맹)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 상위인지 변인과 실제 독서량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교육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부산교육중단연구(2018-2020)’의 결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부산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자 집단에 따른 독서량과 상위인지 간 종단적 효과를 분석하여 비독서(책맹) 현상이 상위인지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파악하고 그 교육적 처방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기한 논의에 기댄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년별 상위인지와 독서량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2. 독자 집단별 독서량과 상위인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책맹의 특성과 원인

비독서(책맹)은 문맹(illiteracy)의 문제에서부터 도출된 개념이다. 이는 인지적 측면의 관심으로부터 정의적 변인에 대한 관심, 특히 독서 태도와 흥

미, 동기 등으로 옮겨왔다. 70년대부터 UNESCO(1974)에서는 유럽 시민 중 57%가 책을 읽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비독서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 왔는데, Decker(1986)는 이를 ‘읽기 사용에 대한 거부감(disinclination to use reading)’으로 명명하며, 비독서의 심각성을 경고하였다.

비독서의 원인에 대해 Decker(1986)는 기초 기능 중심의 교육과정, 최소 성취기준 도달을 목적으로 한 평가, 사회적 변화가 그 원인이 된다고 제시하였고, Nielen(2016)은 비독서의 원인으로 읽기 동기, 읽기에 대한 불안, 문식 환경 등을 꼽았다. 한편 Chong(2016)은 독서 경험이 제도적으로 부과되며 개인이 선택한 독서와의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비독서의 원인을 선택과 선택 의지, 맥락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비독자 집단의 특성에 대해 Beers(1996a)는 비독자 집단을 휴면(dormant), 분명하지 않음(uncommitted), 동기화되지 않음(unmotivated)으로 구분하였고, 김혜정(2019)에서는 비독자 집단이 독해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책을 읽지 않고, 독서 흥미의 부재와 관련하여 책을 읽기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며, 독서 습관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동시에 외부의 문식성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였다.

2. 독서와 상위인지의 관계

본 연구에서 잠재 변인으로 상위인지는 독서 행위와 관련된 인지적 변인 가운데 성공적인 독서를 가능케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독서의 측면에서 상위인지는 학습자가 자신의 독서 활동을 자각하고(self-awareness), 자신의 독해 과정을 점검하며(self-monitoring), 독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해 전략 및 상위인지 전략을 조정하는(self-regulation) 일련의 인지적 행위를 말한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399).

독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위인지의 역할에 대해 Winograd(1984)는 8학년 학습자의 텍스트 요약 과제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상위인지의 결핍을 꼽으며, 요약 과제에 대한 성찰적 인식, 중요도 평정 능력, 요약 능력의 관계를 고찰하며 독해 과정에서의 전략적 기술 사용에 대해 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독해 능력과 상위인지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로는 Boulware-Gooden, et. al.(2007), Eilers & Pinkley(2006)이 있다. 특히 Boulware-Gooden, et. al.(2007)은 독해 과정과 관련한 상위인지 전략으로 텍스트 예측, 텍스트 연결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하여 1학년 학습자의 독해 능력을 향상시켰음을 제시하였다. 영어 교과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상위인지와 독해 능력 및 어휘력의 관계를 분석한 Cubukcu(2008)은 상위인지 전략을 활용한 수업에서 설명적 텍스트의 독해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의 경우 천경록(2003)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독서의 관계를 탐색하며 자유롭게 책읽기(SSR)와 포트폴리오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독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박영목(2006)에서는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 정보 처리와 함께 전략적 과정 중심의 읽기 지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경화(2005)에서는 학습 독서의 관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 방안을 독서 전략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읽기 전략과 상위인지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은진·권연진(2018)은 학습자의 수준이 높을수록 읽기 전략에 대한 상위인지 인식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3. 선행 연구: 학령기 독자에 대한 종단 연구

국내 선행 연구 중에는 각 독서 변인을 초점으로 종단 연구를 실시한 연구들이 많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변인에 따른 학령기 독자 관련 연구

연구명	대상	데이터	인지적 변인	정의적 변인	환경적 변인
김진희 (2021)	중2-고1	패널		국어태도 (국어수업 태도, 국어 효능감, 국어 흥미)	국어활동 (독서 활동, 서술형·논술형 평가, 토의·토론)
김진희·주소향 (2021)	고1	횡단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학업적 자기효능감	독서 활동, 미디어 문식활동 참여
김현욱·이태상 (2015)	중2-고2	패널			부모의 교육지원
김현욱 (2014)	중2-고1	패널		성취목표 지향성	
김혜정·허모아 (2021)	초4, 6, 중3	횡단면		독서 태도	스마트폰 사용 양상
문병상 (2012)	중1-중3	패널	자기조절 학습전략	내재적 읽기 동기	
박혜숙 (2008)	중1-중3 (성별)	패널		독서태도, 독서습관	
오희정·김갑성 (2020)	초4-초6	패널	자기주도 학습		독서활동
이순영 외 (2019)	초5-고2	횡단면		독서 태도, 독서 경험	독서활동, 학교 및 가정 독서 환경
이향미·정혜원 (2020)	초6-중2	패널		자기효능감	독서활동
주영주·서혁 ·이소영 (2012)	중3 (성별)	횡단면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표 1〉에 따르면 독서 관련 연구의 경향은 인지적, 정의적, 환경적 변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인지적 변인의 경우 자기주도학습, 학습전략 및 교수전략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정의적 변인의 경우 국어태도, 독서 태도, 읽기 동기,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지향성 등이 있고, 환경적 변인으로는 국어

활동, 독서활동, 미디어 문식활동(스마트폰 포함), 부모의 교육지원 등이 있다.⁴⁾

데이터의 시계열성을 기준으로 보면 패널 데이터를 횡단면으로 분할하여 분석한 김진희·주소향(2021), 주영주 외(2012)이 있다. 그리고 독서와 관련하여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혜정·허모아(2021)와 이순영 외(2019)이 있다. 횡단면 데이터는 특정 시점에 수집한 표본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시점에 한정하여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을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김진희(2021), 김현욱(2014), 김현욱·이태상(2015), 박혜숙(2008), 오희정·김갑성(2020), 이항미·정혜원(2020)의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종단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다.⁵⁾ 이러한 독서 관련 종단적 연구들은 주로 정의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을 중심으로 종단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인지적 변인을 다룬 연구로 문병상(2012)의 경우 자기조절학습전략과 내재적 읽기 동기, 국어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오희정·김갑성(2020)은 자기주도학습, 독서활동, 국어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독서에 초점을 둔 연구라기보다는 독서 관련 변인과 국어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글을 읽는 데에는 여러 기능들이 작동하지만, 특히 글을 끝까지 읽어나

4) 독서 관련 종단 연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분석에 활용되는 변인은 KELS, GEPS, BELS 등의 연구 설계에 따른다. 종단 연구의 설계에서는 학습자의 일반적인 인지적, 정의적, 환경적 변인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엄밀하게 독서에 한정된 변인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국가 수준에서 실시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독서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패널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5)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한 변인을 여러 시점에서 측정한 데이터이며, 패널 데이터는 횡단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가 혼합된 형태로 여러 변인에 대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측정된 데이터이다. 따라서 패널 데이터는 특정 시점의 패널/코호트 집단의 특성을 종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횡단적으로도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면 모집단의 특성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거나 글을 읽으면서 겪게 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위인지의 작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상위인지의 작동이 좌절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더라도 결국은 글을 읽어내지 못한다. 그러한 읽기 좌절의 경험의 누적되면 결국은 비독자(글자를 읽을 수 있음에도 글을 읽지 않는 책맹)로 전락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상위인지가 독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독서 실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서량'을 내세웠다.

한편 <표 1>과 같이, 전체 집단 혹은 남녀를 구분한 연구는 학습자 전반의 경향성을 나타낼 뿐이고, 종단적 효과도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전반의 경향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는 집단과 책을 읽지 않는 집단을 구분하여, 상위인지가 독서 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연관성이 학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교육종단연구(Bus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BELS)⁶⁾의 패널 데이터 중 P2 패널의 2018년(중학교 3학년) - 2020년(일반고 2학년) 학생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데이터는 2단계 층화군집표집(cluster sampling with stratification) 방법으로 수집했고, 자료의 결측치는

6) BELS는 2016년부터 부산 지역의 표본 패널(초4, 중1, 고1)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매년 학업과 관련된 변인을 추적·조사하며, 2020년에는 중2, 고2를 대상으로 5년차 연구가 시행되었다.

완전제거 방식을 거친, 1,385명(남 672명, 여 7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집단을 제외한, 글을 읽을 수 있음에도 독서를 하지 않는 비독자 집단을 구분해내기 위해, 국어 학업성취도 하위 25%를 제외한 집단 중 학습 목적 외의 독서량을 기준으로 비독자와 독자 집단으로 구분했다.

〈표 2〉 부산교육종단연구 조사 설계

패널	학년별 조사 시기(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초4 패널(p1)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추수 조사
중1 패널(p2)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추수 조사			
고1 패널(p3)	고1	고2	고3	추수 조사						

2. 변인 및 측정 도구

1) 독서량 변인

독서량 변인은 실제 독서 행위를 보여주는 변인으로, 본고에서는 ‘독서량’ 변인을 ‘한 달 평균 독서량, 일주일 평균 독서 시간, 일주일 평균 신문 읽는 시간(인터넷 기사 포함), 일주일 평균 도서관 사용 시간(학교 도서관 포함) 항목’을 포함한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4개 항목은 4문항 모두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⁷⁾

7) 독서량은 학습자의 실제 독서 행위를 추정하는 조작적 변인이다. 이를 하나의 측정 항목만으로 구성할 경우 학습자의 독서 행위의 일부만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본고는 여러 항목을 포괄하여 독서량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독서의 범위는 BELS의 설문 문항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개별 응답의 독서 범위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표 3〉 독서량 변인

척도 문항	문항 신뢰도
독서 활동: 한 달 평균 독서량	3차: 0.73 4차: 0.71 5차: 0.71
독서 활동: 일주일 평균 독서시간	
독서 활동: 일주일 평균 신문 읽는 시간(인터넷 기사 포함)	
독서 활동: 일주일 평균 도서관(학교 도서관 포함) 사용시간	

2) 독자 집단 변인

독자 집단 변인은 BELS의 독서 관련 변인 중 학습 목적의 독서를 제외한 하루 평균 독서량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김혜정(2019)에 따르면 책맹의 경우 학습 목적의 독서 등 외부적 동기로 인하여 독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독서 습관을 가진 학습자 집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독서량 측정 문항보다는 학습 목적의 독서 외 독서량을 묻는 항목이 적합하다. 이에 따라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을 ‘비독자’ 변인으로, 나머지 학생을 ‘독자’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비독자 집단은 독해 능력이 있으나 책을 읽지 않는 독자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3차년도 중학교 3학년 학습자의 국어 학업성취도 점수 변인을 살펴 하위 25%(cut point = 48)를 제외한 데이터(1,385명)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점인 ‘전혀 안함’에 응답한 학습자를 ‘비독자’로, 이외의 학습자를 ‘독자’로 설정하여 이를 더미 코딩하였다.

3) 상위인지 변인

본고가 분석한 데이터(BELS)는 읽기와 직접 관련된 상위인지 전략을 묻는 항목이 없으나, 학습과 관련된 ‘학습 전략, 자기주도학습’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⁸⁾ 이러한 학습 전반에 미치는 상위인지 전략은 읽기 관련 상위

8) 각 시점별 상위인지 변인의 Higher order CFA 모형 적합도는 아래와 같다. Hu &

인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 학습 상황에서 적용될 때는 구분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문 응답으로 사용된 상위인지 항목을 관련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표 4〉 상위인지 변인

척도 문항		문항 신뢰도
학습전략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3차: 0.89 4차: 0.84 5차: 0.87
	공부를 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	나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사물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안다.	
	내 공부의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	
	지금 공부에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해야 할지 알고 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R(version 4.1.1)의 lavaan 패키지와 lmer4 패키지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LGCM, latent growth curve model)⁹⁾과 다층 모형(m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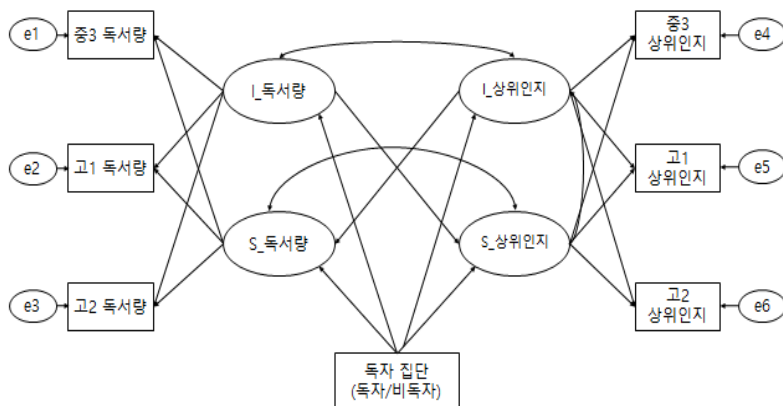
Bentler(1999)의 기준에 따르면 RMSEA가 .06을 초과하나 CFI와 SRMR이 허용 범위 내에 있으므로 상위인지 변인의 모형 적합도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차(중3)	4차(고1)	5차(고2)
CFI	0.948	0.942	0.942
RMSEA	0.095	0.094	0.107
SRMR	0.037	0.039	0.04

- 9) 잠재성장모형은 개체 내 변화 패턴(within-subject change)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백영민, 2017)으로, 초기 상태(intercept)와 변화율(slope)을 잠재 변수

ti-level model)¹⁰⁾을 통해 독자 집단별 독서량과 상위인지의 종단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체 내 차이를 유발하는 변인으로 독서량 변인과 상위인지 변인을, 개체 간 차이를 유발하는 변인으로 독자 집단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먼저 독자 집단에 따른 종단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을 거쳤으며, 기술 통계와 상관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의 공분산 제약 모형을 통해 시점별 변인의 변화 여부를 검증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 변인을 포함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다층 모형을 활용하여 급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coefficient)를 산출해

(latent variable)로 설정하여 특정 개체의 시점별 관측변수를 설명한다. 개체 내 변화는 개체 내부의 요인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개체 간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백영민, 2017: 182).

- 10) 다층 모형은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위계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백영민, 2018)으로 데이터의 시계열성에 따른 공유분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각 변인이 체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검증한 뒤,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무변화, 선형, 비선형 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도출된 연구 모형에 따라 독자 집단에 따른 잠재 변인의 차이와 잠재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고, 마지막으로 독자 집단에 따른 독서량과 상위인지 변인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변인의 기술 통계는 <표 5>와 같다. 독서량 변인의 평균은 학년이 오를수록 낮아졌으며, 상위인지 변인의 평균 역시 하락 또는 답보 상태를 보인다. 이는 모형 분석에 요구되는 정규성 조건을 충족한 결과이다.¹¹⁾

<표 5> 변인별 기술 통계

변인	시점 및 요소				3차년도(중3)				4차년도(고1)				5차년도(고2)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독서량	2.11	0.77	1.36	3.1	2.04	0.66	1.43	4.6	1.84	0.57	1	2.26				
상위인지	4.1	0.61	-0.32	-0.52	4.05	0.58	-0.2	-0.46	4.1	0.63	-0.43	0.03				

11) 본고는 각 변인별 왜도(skewness)가 -.41부터 1.16까지 분포하였고, 첨도(kurtosis) 또한 -.41에서 1.95까지 분포하였다. 홍세희(2000)에 따르면, 정규성 조건으로 왜도 절대값 2 이하, 첨도 절대값 7 이하를 제안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에 적절하다.

다음으로 측정 변인의 상관 관계는 <표 6>과 같다. 독서량과 상위인지 변인의 학년별 상관은 모두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6> 독서량과 상위인지 간 상관 관계

	독서량 1	독서량 2	독서량 3	상위인지 1	상위인지 2	상위인지 3
독서량1	1					
독서량2	0.5354***	1				
독서량3	0.4470***	0.4886***	1			
상위인지1	0.2123***	0.1726***	0.1402***	1		
상위인지2	0.1738***	0.1922***	0.1380***	0.5753***	1	
상위인지3	0.1362***	0.1514***	0.1263***	0.4775***	0.5229***	1

*** $p<.001$

2. 다층 모형 추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 제약을 통해 학년별 측정 변인의 변화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평균의 차이는 독서량 변인이 216.082(59.7%)이며, 상위인지 변인이 13.199(25.3%)로 학년별 평균의 차가 확인되었다. 평균의 차이는 종단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공분산 차이는 독서량 변인이 20.337(4.4%), 상위인지 변인이 27.933(53.5%)로, 독서량 변인의 공분산 차는 미미하나 상위인지 변인의 공분산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 차이는 독서량 변인이 154.792(35.7%), 상위인지 변인이 11.020(21.1%)로 개인차가 확인되었다.

〈표 7〉 공분산 제약을 통한 시간 효과 검증 결과

	평균 차이	공분산 차이	분산 차이	합계
독서량	216.082***	20.337***	154.792***	182.0706
변동량	0.59768	0.044442	0.357878	
상위인지	13.199**	27.933***	11.020**	52.152
변동량	0.253087	0.535607	0.2113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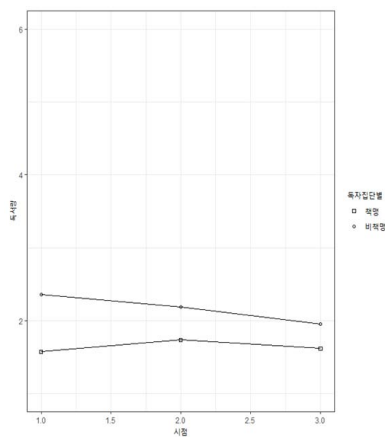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두 측정 변인의 오차간 공분산을 확인하였다.¹²⁾ 이후 다층 모형에 기반하여 측정 변인을 시간과 개인 수준의 2수준으로 분석하였다. 2수준의 기술통계치는 〈표 8〉과 같다.

〈표 8〉 2층 모형의 기술 통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시간 수준 (level-1)					
독서량	4155	2.00	0.678	1	6
시간	4155	2.00	0.817	1	3
개인 수준 (level-2)					
독자 집단별	1385	0.68	0.466	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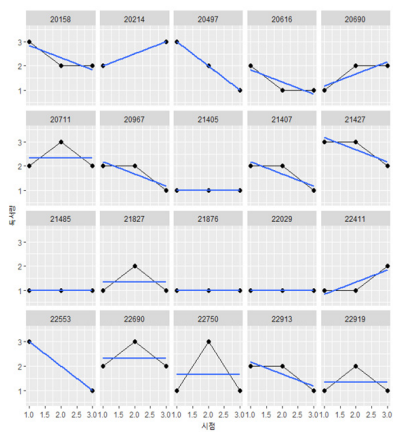
독자집단별 독서량 변화 패턴 및 시점별 독서량 변화 패턴, 상위인지 변화 패턴 및 시점별 상위인지 변화 패턴을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2〉, 〈그림 3〉과 같다.

- 12)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측정 시점이 공유되어 있으면 동일 시점에서 발생한 이벤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chi square difference test 결과 Chisq diff가 10.371($p < 0.05$)로 독서량과 상위인지 변인의 오차 공분산을 포함한 모형이 그렇지 않은 모형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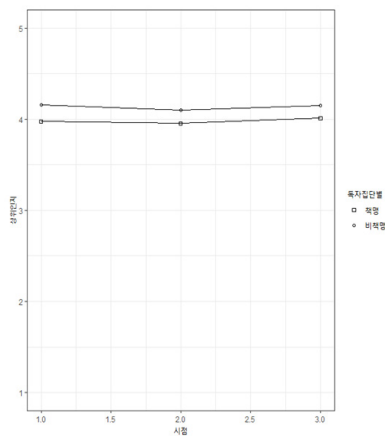


독자 집단별 독서량 변화 패턴

〈그림 2〉 독서량 변화 패턴의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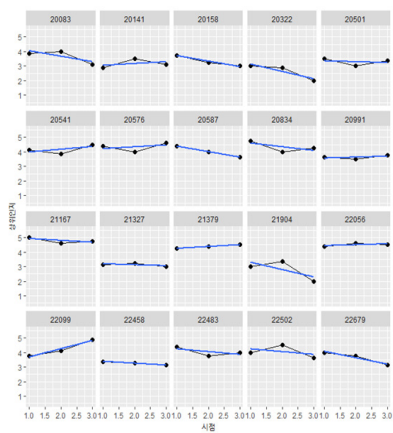


시점별 독서량 변화 패턴(무작위 추출 20명 대상)



독자 집단별 상위인지 변화 패턴

〈그림 3〉 상위인지 변화 패턴의 시각화



시점별 상위인지 변화 패턴(무작위 추출 20명 대상)

이후 독서량 변인과 상위인지 변인의 급내 상관관계수(ICC, Intra-class - correlation)를 산출하였다. ICC는 총 분산차 중 개인차로 발생한 분산값의 비율을 의미하며(백영민, 2018: 85), 0-1의 범위를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1수준의 분산을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록 2수준의 분산을 나타낸다. ICC의 산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독서량 변인의 경우 전체 분산 중 56%는 개인차에 의한 것, 약 44%는 측정 시점 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인지 변인의 경우 전체 분산 중 47%는 개인차에 의한 것, 약 53%는 측정 시점 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자 집단에 따른 독서량과 상위인지 변인의 변화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시점 차에 의한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표 9> 공분산 제약을 통한 시간 효과 검증 결과

	개인차 분산	전체 분산	ICC
독서량	0.251	0.196	0.561521
상위인지	0.176	0.192	0.478261

3. 독자 집단에 따른 독서량 및 상위인지의 잠재성장모형 분석

1) 모형 적합도 검증

독자 집단별 독서량과 상위인지 변인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기반으로 무변화 모형, 선형 변화 모형, 비선형 변화 모형을 비교하여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였다.¹³⁾

13) 무변화 모형은 각 변인의 변화율을 고정하여 시간의 효과를 통제한 모형이며, 선형 모형은 시점별 변인의 변화율을 설정한 모형이다. 비선형 모형은 각 변인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설정하며 동일 시점의 이벤트 효과 통제한 지체 모형을 포함한 것이다.

〈표 10〉 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모형	χ^2	$\Delta\chi^2$	df	AIC	BIC	CFI	TLI	RMSEA (90% CI)	SRMR
무변화	426.07	310.936***	20	13896	13964	0.836	0.828	0.121 (0.111-0.131)	0.087
선형	115.13	48.262***	13	13599	13704	0.959	0.933	0.075 (0.063-0.088)	0.038
비선형	66.87		7	13563	13699	0.976	0.928	0.079 (0.062-0.096)	0.024

*** $p < .001$

〈표 10〉의 모형 적합도(model fit index)¹⁴⁾를 살펴보면 모형 간 χ^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무변화 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선형 모형과 비선형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또한 선형 모형과 비선형 모형의 정보지수(information criterion)를 비교한 결과,¹⁶⁾ 비선형 모형이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선형 모형을 적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하였다.

-
- 14) 인지과학 분야에서 SEM의 모형 적합도 검증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Hu & Bentler(1999)에서는 $SRMR \leq .08$, $CFI \geq .95$, $RMSEA \leq .06$ 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 15) 무변화 모형의 경우 $CFI=0.836$, $TLI=0.828$, $RMSEA(90\% CI)=0.121(0.111-0.131)$, $SRMR=0.087$ 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형 모형은 $CFI=0.959$, $TLI=0.933$, $RMSEA(90\% CI)=0.075(0.063\sim 0.088)$, $SRMR=0.038$ 로, 비선형 모형의 경우 $CFI=0.976$, $TLI=0.928$, $RMSEA(90\% CI)=0.079(0.062-0.096)$, $SRMR=0.024$ 로 CFI , TLI , $SRMR$ 지수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보였다.
- 16) 선형 모형의 경우 $AIC=13599$, $BIC=13704$ 로, 비선형 모형의 경우 $AIC=13563$, $BIC=13699$ 로 나타났다.

2) 독자 집단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추정

독자 집단에 따른 잠재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잠재성장모형 추정 결과는 <표 11>과 같다.¹⁷⁾

<표 11> 잠재성장모형의 경로 계수

경로		β	B	S.E	C.R.
독자 집단	→ 독서량	0.742***	0.64	0.036	0.919
	→ 독서량 변화율	-0.201***	-1.018	0.02	0.981
	→ 상위인지	0.177***	0.176	0.033	0.484
	→ 상위인지 변화율	0.046	0.178	0.038	0.454
독서량	→ 상위인지 변화율	-0.093*	-0.413	0.044	0.794
상위인지	→ 독서량	0.075***	0.388	0.013	0.920
	→ 독서량 변화율	-0.101**	-0.517	0.035	0.884
상위인지 변화율	→ 독서량 변화율	0.01	1.377	0.005	0.99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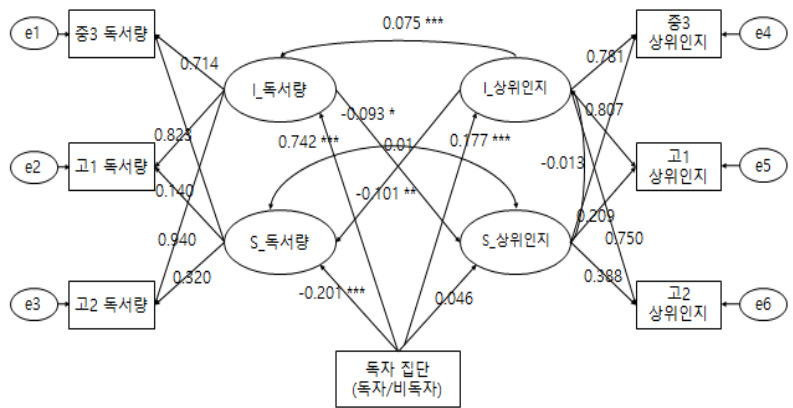
독자 집단이 잠재 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량 변인과 관련한 결과이다. ①독자 집단이 비독자 집단에 비해 독서량이 0.742가 많고, 독서량 변화율은 -0.201로써 독서량의 증가가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상위인지가 높은 학생의 독서량 증가 속도가 0.101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인지 변인과 관련하여서는, ③독자 집단이 비독자 집단에 비해 상위인지가 0.177이 높고, 독서량에 따른 상위인지의 변화율은 0.093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자 집단에 따른 학년별 독서량이다. ①독자 집단이 비독자 집단

17) 잠재성장모형에서의 변화는 초기 상태(initial status)와 변화율(change rate)로 나타난다(백영민, 2017: 179). 본 연구에서는 가독성을 높이하고자 초기 상태를 각 잠재 변인의 변인명으로 사용하였다.

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②독자 집단에 따른 학년별 상위인지는 독자 집단이 비독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독자 집단의 학년별 독서량 변화율은 -0.201 로, ③독자 집단의 독서량 변화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독자 집단의 학년별 상위인지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218$).

이상의 추정 결과를 시각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최종 모형

3) 매개 효과 추정

다음으로 독자 집단에 따른 독서량과 상위인지 변인의 매개 효과를 추정하였다.

<표 12> 잠재성장모형의 매개 효과 경로 계수

경로		β	B	S.E	C.R.
독자 집단별 $\rightarrow$ 상위인지 $\rightarrow$ 독서량 변화율	간접효과	-0.018^*	-0.091	0.007	0.541
	직접효과	-0.201^{***}	-1.018	0.02	0.981
	총효과	-0.219^{***}	-1.109	0.019	0.984

독자 집단별 → 독서량 → 상위인지 변화율	간접효과	-0.069*	-0.264	0.033	0.678
	직접효과	0.046	0.178	0.038	0.454
	총효과	-0.023	-0.087	0.018	0.296

* $p < .05$, *** $p < .001$

먼저 첫 번째 칸을 보면, 독자 집단에 따라 독서량의 변화율에 미치는 ‘상위인지의 매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부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p < 0.001$). 즉 비독자 집단이 상위인지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독서량의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번째 칸을 보면, 독자 집단에 따라 상위인지의 변화율에 미치는 ‘독서량의 매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비독자 집단에서 독서량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⁸⁾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책맹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층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독자 집단에 따른 독서량과 상위인지 간 종단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독자 집단의 상위인지에 비해 독자 집단의 상위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beta = 0.177, p < 0.001$). 이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인 독서량과 상위인지 간 관계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둘째, 상위인지가 독서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8) 간접효과를 제외한 직접,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0.075, $p<0.001$).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독서량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지만, '상위인지의 발달에 따른 독서량'은 미미하나마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위인지가 독서량의 '변화율'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01$, $p<0.01$). 이는 상위인지가 독서량을 늘이는 데 분명한 기여를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독자 집단이 비독자 집단에 비해 독서량 상승폭이 낮기($\beta = -0.201$, $p<0.001$)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상위인지가 독서량에 미치는 중단적 효과, 즉 시간에 따른 정적인 영향은 유의미하나 독자 집단의 독서량 변화율이 부적으로 나타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특히 중3에서 고1의 시기는 상위인지의 발달 등으로 인한 독서량의 차이보다 외부적 요인(학업적 부담,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독서량의 감소가 더욱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독자 집단일수록 학습에 대한 부담도 커서 학업 때문에 독서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작동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이번 종단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 데서 오는 불가피한 연구 한계로서, 학업적 부담 등의 외부적 요인을 사전에 통제했으면 더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 효과 추정에서도 나타난다. 독자 집단별 독서량 '변화율'에 상위인지가 매개하는 효과가 부적으로 나타났는데($p<0.001$), 이 역시 독서량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독자 집단별 상위인지 '변화율'을 보면, 비독자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beta = 0.167$, $p<0.05$), 독자 집단에서는 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 집단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성장하면서 상위인지의 발달이 미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습자의 상위인지 활용 능력이 발달하지 않는 현상은 교육과정의 실행 수준에서 상위인지 발달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거나,

교사가 독서 활동 중 상위인지 전략을 활용하는 활동을 잘못 가르치거나 가르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인지 전략의 교수·학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Collins & Smith(1980)는 상위인지를 집중적으로 교수하는 전략으로, 독해 실패 분류에 기반한 독해 점검표,¹⁹⁾ 이들이 제시한 독해 문제 해결 방안인 무시하고 계속 읽기, 판단 보류하기, 잠정적 가설 설정하기, 현재 문장 다시 읽기, 이전 문맥 다시 읽기, 전문적인 자료 찾기 등을 학습자가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제안했다. 이뿐 아니라 독서 후에는 이전 독서 이력과의 관련성, 앞으로의 독서 계획이나 추후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활동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해에 대한 자기점검, 독서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사용 등은 학습자의 독서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독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 자율적 독서가 격려되어야 한다. 독서 교육의 관점에서 독자 집단의 독서량 변화의 감소 효과가 나타난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천경록(2003)에서는 자기주도적인 독서를 위해 SSR(Sustained Silent Reading, 자유롭게 책읽기)이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²⁰⁾ 이는 독서 과정에서 상위인지의 자발적인 실행을 통해 지속적인 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독자 집단의 초기 독서량이 비독자 집단에 비해 팔목할 만큼 차이가 나지 않고, 독서량 변화율이 비독자 집단에 비해 낮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혜정·허모아(2021)에서도 저조한

19) 여기에는 낱말 이해, 문장 이해, 문장 간 연결 관계, 단락 간 연결 관계, 목적이나 맥락의 조정 수준에서의 실패에 대한 진술이 포함된다(Collins & Smith, 1980; Irwin, 2006/2012: 194 재인용).

20) SSR은 독서 시간과 장소, 충분한 읽을 거리를 제공한 뒤 학습자 스스로 책을 선정해 독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독립적인 읽기 프로그램이다(천경록, 2003: 191).

독서의 원인으로 비독자 집단은 시켜서 읽는 것을, 독자 집단은 학업 때문임을 꼽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도입되면서 ‘과정 중심 수행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상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점은 좋지만, 자칫 지나친 강조는 비자발적인 독서, 보여주기식 독서로 이어질 수 있다.

요컨대, 독서 교육은 독해 기능 중심의 교육에서 나아가 보다 더 전략적이고 실제적인 독서 수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상위인지와 독서 태도를 고려한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 연구는 2018-2020 부산교육중단연구의 설문 데이터를 사용하여 재분석한 것으로 처음부터 ‘독서’와 관련된 면밀한 설계를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 향후 독서 교육에 있어 상위인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본 논문은 2021.10.31. 투고되었으며, 2021.11.13. 심사가 시작되어 2021.12.0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진희(2021), 「중학생의 국어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활동, 서술형·논술형 평가, 토의·토론활동 요인 분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6), 27-37.
- 김진희·주소향(2021),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독서 활동과 미디어 문식활동 참여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에 미치는 영향-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6), 131-140.
- 김현옥(2014), 「성취목표 지향성과 학생 독서량의 관계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4), 87-106.
- 김현옥·이태상(2015), 「부모의 교육지원과 학생 독서량의 자기회귀 교차지연효과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109-123.
- 김혜정(2019), 「미디어 시대의 책맹(비독서) 현상과 독서 교육의 방향」, 『독서연구』 52, 9-49.
- 김혜정·허모아(2021), 「청소년기 독서 수행 및 인식에 관한 실태 조사-비독서의 이유와 스마트폰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59, 9-50.
- 류수경(2020), 「내재적 독서 동기 촉진 교수 전략에 대한 이론적 탐색-외적 보상이 내재적 독서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54, 39-64.
- 문병상(2012), 「내재적 읽기동기, 자기조절학습전략, 국어성취도 간의 종단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3(4), 143-162.
- 박영목(2006), 「전략적 과정 중심 읽기 지도 방안」, 『독서연구』 16, 269-296.
- 박혜숙(2008), 「시간에 따른 중학생의 독서태도, 독서습관, 독서시간과 국어성취도와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39(3), 27-49.
- 백영민(2017), 『R을 이용한 사회과학데이터 분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백영민(2018), 『R을 이용한 다층모형』, 서울: 한나레아카데미.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 사전』, 서울: 대교출판.
- 오희정·김갑성(2020),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및 독서활동과 학업성취도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719-738.
- 이경화(2005),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습독서 전략 연구」, 『새국어교육』 71, 213-234.
- 이순영(2019), 「독자와 비독자 이해하기-용어, 현황, 특성, 생성·전환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0(6), 357-384.
- 이순영·김주환·백원근·박신애(2019), 『청소년 독자·비독자 조사 연구』, 전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이은진·권연진(2018),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전략의 상위인지 양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819-838.
- 이항미·정혜원(2019), 「청소년의 독서활동,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 『教育學

- 연구』 57(3), 233-257.
- 이항미·정혜원(2020), 「청소년의 독서활동, 진로성숙도, 자기주도학습의 종단적 관계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중등교육연구』 68(2), 389-412.
- 주영주·서혁·이소영(2012), 「특집: 제1차 국제학술대회 -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성별에 따른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 분석」, 『國語教育學研究』 45, 583-620.
- 천경록(2003), 「독서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 탐색」, 『국어교육』, 111, 177-201.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Beers, G. K. (1996a), "No time, no interest, no way! the 3 voices of aliteracy", *School Library Journal* 42(2), 30-33.
- Beers, G. K. (1996b), "No time, no interest, no way! the three voices of aliteracy: Part 2", *School Library Journal* 42(3), 110-113.
- Boulware-Gooden, R., Carreker, S., Thornhill, A., & Joshi, R. M. (2007), "Instruction of metacognitive strategies enhances reading comprehension and vocabulary achievement of third-grade students", *The Reading Teacher* 61(1), 70-77.
- Chong, S. L. (2016), "Rethinking aliteracy: When undergraduates surrender their reading choices", *Literacy* 50(1), 14-22.
- Collins, A. & Smith, E. E. (1980), "Teaching the process of reading comprehension", *Center for the Study of Reading Technical Report* 182, 1-42.
- Cubukcu, F. (2008), "Enhancing vocabulary development and reading comprehension through metacognitive strategies", *Issues in Educational Research* 18(1), 1-11.
- Decker, B. C. (1986), "Aliteracy: What teachers can do to keep johnny reading",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7(6), 55-58.
- Eilers, L. H. & Pinkley, C. (2006), "Metacognitive strategies help students to comprehend all text", *Reading Improvement* 43(1), 13-3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Irwin, J. W. (2012), 『독서 교육론』, 천경록·이경화·서혁(역), 박이정(원서출판 2006).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NY: Association Press.
- Nielen, T. M. J. (2016), "Aliteracy: causes and solutions", Doctoral dissertation, Leiden University.
- OECD(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aris: OECD Publishing.
- UNESCO(1974), *Anatomy of an international year: Book Year- 1972*, Paris: United Na-

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ilson, R. M. (1981), "Any way you read it, illiteracy is a problem", *Presstime* 3(9), 4-8.

Winograd, P. N. (1984), "Strategic difficulties in summarizing texts", *Reading Research Quarterly* 19(4), 404-425.

독자 집단에 따른 독서량과 상위인지의 종단적 효과 연구

오규설 · 김혜정

본 연구는 부산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자 집단에 따른 독서량과 상위인지 간 종단적 효과를 분석하여 책맹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 독자의 독서 실태에 대한 정의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 여러 논의가 있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변인의 종단적 효과를 규명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2 패널의 2018년(중3)~2020년(고2)도 일반고 학생 응답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층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종단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독자 집단의 초기 상위인지에 비해 독자 집단의 상위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상위인지가 독서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독서량의 변화율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자 집단별 상위인지의 변화율이 비독자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독자 집단에서는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독자 집단과 독자 집단의 독서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비독자 집단의 독서량 변화율이 독자 집단의 독서량 변화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후 학교 현장의 평가 정책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행 측면에서 대안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책맹, 독자 집단, 독서량, 상위인지, 종단 연구, 다층모형, 잠재성장모형

ABSTRACT

A Study on the Longitudinal Effects of Reading Quantity and Meta Cognition by Reader Group

Oh Kyuseol · Kim Hye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lternatives to the problem of blindness by analyzing the longitudinal effects between the reading quantities and meta cognitive strategies according to the reader group target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Busan area of Korea.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focusing on the affective variables of adolescent readers' reading conditions, this study sought practical alternatives by identifying the longitudinal effects of cognitive variables. In this study, the longitudinal effect was analyzed using the multi level model and the latent growth model for general high school student response data from 2018(middle school third year) to 2020 (high school second year) of the P2 panel.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cognition of the non-aliteracy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initial cognition of the aliteracy group. Second, it was found that while the initial status of meta cogni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itial status of reading quantity, i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rate of change of reading quantity. Third, the rate of change of meta cognition by reader group was significant in the aliteracy group, and the change was not significant in the non-aliteracy group. Fourth, whil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reading quantity between the aliteracy group and the non-aliteracy group, the change rate in reading quantity of the aliteracy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non-aliteracy group. After that, alternatives were discussed in terms of school site assessment policies and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KEYWORDS Aliteracy, Reader Group, Reading Quantity, Meta Cognition, Longitudinal Study, Multi Level Model, Latent Growth Curve Model